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
- ② 만물의 근본 원리인 도를 따라 무위자연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 ③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兼愛] 한다.
- ④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떠나야 한다.
- 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求放心] 본성을 잘 길러 나가야 한다.

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정부의 기능 확대는 현재 경제 형태들의 근본적 파괴를 피할 수 있는 실행 수단이다. 정부는 도로 건설, 주택 건축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p> <p>을: 정부의 경제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반면에 개인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자유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법 레〉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p> <p>〈예 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민주적 방식의 국가 경제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함을 간과한다.
- ③ A: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투자 정책을 세워야 함을 간과한다.
- ④ B: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 규제가 허용됨을 간과한다.

3.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절제는 품성적인 덕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절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즐거움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을: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발견되는 덕으로, 쾌락의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 ① 개인의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 ②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 ③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 ④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 ⑤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4.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그가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을: 어떤 사람이 비겁한 자이거나 영웅인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인간이 세계 속에 실존한 이후의 일이다.

- ① 갑: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지식을 적용해야 한다.
- ② 갑: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 가치는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
- ③ 을: 인간 본질을 결정하는 외적 존재를 통해 실존을 자각해야 한다.
- ④ 을: 실존적 불안 극복을 위해 관습적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현실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정서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용의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서를 능동이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동이라고 이해한다.

- 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 ②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 ③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 ④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 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근대 서양 사상이자 을과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쾌락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는 것도 항상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고통의 제거를 넘어서는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다.</p> <p>을: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입법자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것의 강도, 지속성,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p> <p>병: 쾌락은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p>
(나)	<div style="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법 레></p> <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p> </div>

<보 기>

- ㄱ. A: 사려 깊음과 정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
 ㄴ. B: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
 ㄷ. C: 도덕적 이상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ㄹ. D: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한국 유교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이(理)가 발하여 사단이 되는데, 여기서 발하는 바탕[資]은 기(氣)이지만 실제 그렇게 발하게 하는 것은 이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말[馬]을 이끄는 주인이므로, 가는 것은 말이지만 말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인 것과 같다.

을: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궤도를 잃는 것처럼,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다만 성(性)이 발한 이후에 이를 위주로, 기를 위주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와 기가 서로 발하는 것은 아니다.

<보 기>

- ㄱ. 갑: 정(情)은 그 연원[所從來]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
 ㄴ. 갑: 칠정은 기가 이의 주재를 벗어나면 결코 선이 될 수 없다.
 ㄷ. 을: 사단은 반드시 성이 발해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用]이다.
 ㄹ. 갑과 을: 이는 기가 발하게 하는 원인과 근거[所以然]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는 어원상 '국민'과 '통치'의 합성어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통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선과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의 주된 역할은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 기구를 통하여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 ① 국민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을 행사한다.
 ② 민주주의는 정치적 절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③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일반 시민은 소수 정치인보다 합리적이다.
 ④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한다.
 ⑤ 정치 엘리트는 국민 여론으로 형성된 정책의 집행자 역할만을 한다.

9.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도(道)와 의(義)를 짝으로 삼는다. 이것은 의가 쌓여서[集義]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을: 좌망(坐忘)은 자신의 육신과 총명(聰明)을 모두 무너뜨려서 그 형체와 지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와 하나로 융합된 상태이다.

<보 기>

- ㄱ. 갑: 대인(大人)도 삶이 궁핍해지면 양지(良知)를 잃게 된다.
 ㄴ. 갑: 천명을 받은 군주는 민심을 잃어도 결코 쫓아내서는 안 된다.
 ㄷ. 을: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心齋]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사회사상이자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는 자유를 절대적 의미에서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옹호해야 할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우리의 권리는 역사적인 것이지만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에 관습과 법이 인정할 때만 권리가 된다. 법의 지배하에서는 누구도 자의적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 ① 개인이 지닌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② 비자의적 권력의 존재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③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④ 법의 지배하에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⑤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정형화된 삶의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

11.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이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을: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보다 친숙한 사람에게 더욱 잘 공감한다. 그래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이 요구된다.

<보 기>

- ㄱ. 갑: 일반적 진리는 추론 없이 경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 ㄴ. 을: 공감도 편향될 수 있으므로 반성과 교정을 필요로 한다.
- ㄷ. 을: 이성은 감정과 병행하여 정념을 실행하는 의지를 촉발한다.
- ㄹ. 갑과 을: 지식의 확장에는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이 요구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다. 평화 조약에 의해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히 종식되지는 않는다.

을: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며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보 기>

- ㄱ. 갑: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 평화 연맹에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
- ㄴ. 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한다.
- ㄷ. 을: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 ㄹ. 갑과 을: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臣)이 임금님께 삼가 아뢰옵니다.

마음속 측은지심을 이끌어 기르면 어진 정치를 행할 수 있으니, 측은지심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실에 비유하면 측은지심은 실뿔치와 같고 이것을 풀어내면 효제(孝悌)를 할 수 있으니, 어느 것이 근본이고 말단이겠습니까? 맹자가 직접 사단을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다.” 라고 풀이했으니, ‘단(端)’이 ‘시작[始]’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뜻을 생각하시어 부디 어진 정치를 베풀어 주시길 간청하옵니다.

- 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덕이 측은지심의 근본이다.
- ② 형구(形軀)의 기호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
- ③ 인간만이 지닌 성(性)은 기질에 따라 선악의 향방이 변할 수 있다.
- ④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로 부여된 천명(天命)이다.
- ⑤ 시비지심을 시작으로 삼아 확충하면 성으로서 지(智)를 형성할 수 있다.

14.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모든 사람은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실천 이성에 부여된 제1 원리는 선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선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다.’가 그 원리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제1 계명은 ‘선은 행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악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 ①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성향이 없다.
- ②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 ③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④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참된 행복에 도달한다.
- ⑤ 인간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그러한 법은 영원법에 부합할 수 있다.

15.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치지(致知)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끝까지 확충하는 것이다. 만약 치지하지 못하면 악을 미워해야 함을 알면서도 미워함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을: 치지란 모든 사물 각각의 이치(理)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지하면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니, 그 불선(不善)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① 갑: 마음의 천리를 깨달아 객관적 사물이 지닌 이치를 알 수 있다.
- ② 갑: 마음을 바로 잡으면(格物) 양지는 별도의 학습 없이 획득된다.
- ③ 을: 성선(性善)은 측은지심의 실마리(緝)인 인(仁)을 통해 확증된다.
- ④ 을: 개별적인 도덕 실천보다 궁리(窮理)를 통한 앎을 중시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진정한 앎(眞知)을 실현하는 수양인 치지를 이루어야 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동양 불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唯識]이다. '식'에서 떠나지 않는 법(法)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양극단을 벗어나 중도(中道)에 부합한다.
 을: 모든 것이 공(空)하지 않다면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다. 인(因)과 연(緣)에서 생겨나는 일체 법은 공이고 가명(假名)이며 중도에 부합한다.

<보 기>
 ㄱ. 갑: 영원불변의 나를 상징하는 자아의식은 자성(自性)을 지닌다.
 ㄴ. 갑: 세속의 오염된 의식을 전환하여 맑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
 ㄷ. 을: 인연의 화합에 의해 생겨난 사물은 임시적으로 존재한다.
 ㄹ. 갑과 을: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18.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서양 외적(洋賊)을 치자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 선 사람이고, 서양 외적과 화친하자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 선 사람이다. 전자는 나라 안 문물제도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는 사람들을 짐승의 영역에 밀어 넣을 것이다.
 (나) 우리의 도(道)는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고 한울님의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守心正氣]이다. 한울님의 성품을 따르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것[無爲而化]이다.

- ① (가): 민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 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 ② (가): 서양의 물건을 풍속을 해치므로 서양과의 교역을 단절해야 한다.
- ③ (나): 현세의 고통을 인내하고 사후(死後)의 극락세계를 기다려야 한다.
- ④ (나): 보국안민을 위해 동양의 학문과 서양의 종교를 융합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성리학적 신분 질서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세운 인격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을: 국가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나)

<보 기>
 ㄱ. A: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가?
 ㄴ. B: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가?
 ㄷ. B: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가?
 ㄹ. C: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 조직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모든 법(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여래의 좌(坐)이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는 것이 여래의 선(禪)이다. 근본 바탕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본체가 뚜렷이 밝음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견성성불(見性成佛)이며 여래의 지견(知見)이다.
 을: 한마음[一心]은 부처가 체득한 것이므로 이 마음을 일컬어 불성(佛性)이라 부른다. 이는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괄 하는데, 마치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모이듯 한맛[一味]으로 돌아가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